

광주·전남 확진자 감소세...1주일만에 1만명대로

20일 신규 확진자 1만5318명 확산세 주춤...“방역 준수해야”

연일 2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주일만에 1만명대로 감소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광주 8461명·전남 6857명으로 총 1만5318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매

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가 2만명대를 기록했다.

14일 2만2627명(광주 1만1173명·전남 1만 1454명)이 감염된 이후 15일 2만7691명(1만 1542명·1만6149명), 16일 역대 최다인 2만 7967명(1만5838명·1만2129명)이 감염됐다.

17일 2만6811명으로 전남 대비 약 1000명이 줄어든 가운데 18일 2만2344명, 19일 2만929명 등으로 확산세가 주춤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 북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에서 각각

29명,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령대 별로는 20세 미만이 신규 확진자의 26.9%(2275명)를 차지했고 이어 20대가 14%(1182명) 순이었다.

전남에서도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 별 확진자는 목포 1225명, 여수 1066명, 순천 1083명, 나주 409명, 광양 528명, 담양 169명, 곡성 89명, 구례 99명, 고흥 174명, 보성 79명, 화순 181명, 장흥 87명, 강진 92명, 해남 245명, 영암 176명, 무안 473명, 함평 77명, 영광 193명, 장성 140명, 완도 124명, 진도

64명, 신안 54명이다.

계학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신규 확진자의 27.3%(1871명)이 발생했다.

20세 미만 확진자가 31.5%(2165명)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60대 이상이 20.9%(1430명)로 뒤따랐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요즘 누가 8명씩 모이나”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완화 ‘생색내기’ 질타

“정부가 자영업자 눈치 보고 8명으로 늘려 준 것 같은데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누가 8명씩 오겠다.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현행과 같은 오후 11시로 유지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명이 나오는 데다 소폭 완화 수준으로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확진자 수가 몇십만 명씩 나온 이후에 예약이 한 건도 없었다”며 “오후 7시만 되면 손님이 딱 끊겨서 영업시간 늘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회장도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30명 이상 올 수 있게 해야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한두 명 늘리는 식으로는 매출인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전했다.

광화문 인근 국숫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직원 이모(30)씨는 “그간 많아야 6명이 한 팀으로 오고 있어서 8명으로 바뀐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며 “오히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가게를 찾는 손님이 한정적인 것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확진자 수가 심각할 때는 오히려 풀어주고 주춤할 때 강화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다. 아이러니한 것 같다”며 “지금은 심각한 것 같은데 되려 풀어주는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소폭 완화가 아닌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신규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온 뒤부터 손님 발걸음이 딱 끊겼다”며 “인원 2명을 늘려준다고 손님이 더 올 것 같나. 시간제한을 풀어야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 무장에 시티투어 버스 오늘부터 본격 운행 11월30일까지...모두 20석

광주시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무장에 시티투어 전용버스를 22일부터 운행한다.

광주 무장에 시티투어 전용버스는 휠체어 전용 2석을 포함해 모두 20석으로, 수어와 다국어를 포함한 디지털 가이드를 도입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도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광주송정역→공항역→유스퀘어터미널→중의공원→전통문화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일빌딩→양림역사문화마을→김치타운→공연마루(오후만)→유스퀘어터미널→공항역→광주송정역 코스로 일일 2회 운행한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무장에 시티투어 전용버스 도입으로 광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고 적극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연계 투어버스는 1코스 무등산권 지질명소투어, 2코스 빛고을 남도투어, 3코스 남도 맛기행 투어로 3개의 코스로 매주 토·일 일일 1회 운행한다.

시티투어 탑승권 예약은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까지 좌석의 50%만 예약 운행한다.

최이슬기자



만개한 매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춘분(春分)'을 하루 앞둔 20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화가 만개해 있다. (사진=독자 제공)

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등 후보자 자격검증 철저”

1차 검증위원회 회의...“시민 눈높이 맞은 깨끗한 후보 공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없는부적격’ 원칙을 정했으며,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이같은 원칙 하에 검증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2019년 12월 18일 운항호범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기소유예 이상)는 ‘검증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김재형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정당의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

하는 것”이라며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검증신청자들의 자격을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각급선거에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구로,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검증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박남진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